

라운드테이블: 한국여성문학연구의 궤적

날짜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604호

사회

김양선 (한림대 일송자유교양대학 부교수)

패널

이상경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심진경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손유경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서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김양선 안녕하세요. 저는 3부 라운드테이블 사회를 맡은 김양선입니다. 패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라운드테이블 기획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문학학회 창립 20+1주년을 맞아 ‘한국여성문학연구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성글게나마 여성문학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90년대 전후를 즈음하여 여성문학연구의 물꼬를 어렵게 트신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여성문학연구에 진입했거나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신진연구자·비평가 선생님들까지 패널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연구 과제나 관심 분야,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다를 것이고, 지금까지 이뤄온 여성문학 연구의 성과랄지 이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평가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면서 생산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일단 네 분의 패널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여성문학 연구와 비평에 입문하게 된 계기나 관심 분야를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여성문학 연구나 비평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회를 밝히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안녕하세요 이상경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1998년 12월의 창립총회에서 한국의 여성문학에 대해 발표를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창간호를 들여다보니, 제가 ‘한국여성문학의 선 자리, 갈 길’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글을 실었더라고요. 창립대회 당시에 한국여성문학의 과거를 살피면서 연구자로서의 포부 같은 것을 호기롭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만, 21년이 지난 오늘, 유사한 주제인 ‘한국여성문학연구의 궤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되돌아보니, 이 뿌듯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당시의 나의, 우리의 다짐을 얼마나 해내었는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과 부끄러움 또한 매우 큼니다.

왜 『여성문학연구』 창간호에 그런 글을 쓰게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서 왜 여성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는가.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두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2학년 때 서울대 국어국문과에 진입했는데, 그때가 1979년 유신 정권의

말기이고 3학년과 4학년은 광주항쟁을 겪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시기이었기에 전공공부를 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라리로 다녔지만 (웃음) 어쨌든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문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분노와 의혹, 그게 제가 여성문학 연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입니다.

분노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연히 학과 도서관에 꽂혀 있는 강경애의 『인간문제』라는 작품을 읽고 느낀 분노가 제 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작가도 작품도 모두 나는 처음 접한 것이었는데 그 작품이 가진 주제의식이라든지 묘사의 수준이라든지 하는 것이 당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 혹은 문단에서 논의하던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의 문제 등 그런 고민과 지향을 선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작가의 작품에서 이런 부분을 읽고 나니, ‘아니 이런 작가와 작품이 이미 우리 문학사에 있었다니! 게다가 작가가 여자네! 내가 들은 여자 작가 이름은 겨우 박화성, 최정희 정도인데! 강경애는 내가 읽은 문학사 관련 책이나 논문 어디에도 왜 나오지 않지? 강의실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게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지?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 같은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 백철의 『문예사조사』 귀퉁이에 「지하촌」이 언급되면서 강경애를 동반자 작가, 자연주의 작가라고 한 문장으로 스쳐 지나가듯이 써놓았더군요. 이를 계기로 작가 강경애를 공부하게 되었고, 석사 학위 논문을 강경애 연구로 썼습니다. 즉 ‘이런 작가와 작품이 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분노로 강경애 연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내가 읽은 『인간문제』는 김윤식 교수가 편집하고 해설을 쓰면서 간단하게 그 작품의 의미를 밝혀 놓으셨지만 작가의 문제라든지 문학사적 의미 부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던, 그 이전까지는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의혹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와 다른 여자 친구들도 함께 느끼고 있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의혹의 실체를 해명해 보자고 한 것이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아까 김은하 선생의 발표¹에서도 잠

1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호에 실린 김은하, 「문학 정전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 글쓰기의 기원과 정체성을 찾아서」 참조.

간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1985년 『여성』 창간호에 「여성의 눈으로 보는 한국문학의 현실」이라고 한국문학사의 정전에 들어간 남자 작가의 작품들을 막 ‘욕’하는 글을 써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쓴 것은 아니고 제가 다니던 대학 국문과의 여자 동료 세 명과 함께 썼지요.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전하고 계열별 모집을 하면서 몇 년간은 국문과 학부에 아예 여학생이 없다가 한두 명 진입한 시기, 국문과 대학원 석사 입시에 여학생 두 명만 합격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우리 국문과의 학통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막말(!)’을 들어야 했던, 그런 국문과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후 박사까지 마친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진학하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남자들만 드글드글하고 그야말로 남성중심적인 국문과 분위기에서 몇 안 되는 여학생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온갖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의 독서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무 책이나 마구, 나름 책 좀 읽었다고 하는 친구들이었지요. 전공 과정에서 읽은 한국문학의 ‘정전’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문학전집’에 들어 있던 ‘정전’ 같은 것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수다를 떠는 중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떤 작가의 어떤 소설은 읽으면서 웬지 좀 불쾌했다, 불편했다, 그런 느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불쾌하고 불편한 느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다들 뭐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나의, 아니면 우리의, 까탈스러움 탓인가? 어쩌면 텍스트 자체나 여러 가지 문학적 관행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국문과에서 교수님이나 남학생들이 ‘시끄럽다’고 하던 그런 여학생 네 명이 있어서, 그 느낌의 정체가 뭔지, 원인은 뭔지, 계속 그런 글을 ‘정전’이라고 떠받들면서 읽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자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다,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글을 썼는데, 그게 당시 남성 중심 문단과 문학연구자, 문학평론가들에게 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술자리 같은 데서 그 글에 대한 비평, 이라기보다는 비난 같은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론 같은 글도 나왔었지요. 그 이후 저는 좀 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성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의미부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컨대, 여성문학연구를 왜 시작했느냐? 의혹과 분노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진경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을 하는 심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뚜렷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성문학을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우연히 입문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후적으로 의미를 찾은 경우에 가깝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이나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한테도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문학연구 과정에서 학계의 성차별,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문학 연구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대학 내 여성연구자로 몇몇 선후배와 여성문학 관련 스터디를 하다가 여기 계신 김양선 선생님 권유로 한국여성연구소 내 ‘문학분과’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여성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연구자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 당시 한국여성연구소 회원들이 만들던 잡지 『여성과 사회』에 ‘모성성’ 관련 글을 쓰게 됐고 이 글을 계기로 『실천문학』에 청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비평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지금까지 문학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자 선생님께서 축사에서 “지금껏 여성만 봤는데, 좀 넓은 시각에서 우리 문학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성이 사실 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여성이라는 연구 주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손유경 안녕하세요. 손유경입니다. 저는 사실 여성문학학회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라운드테이블에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문학 연구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 제가 읽고 있었던 게 박완서, 오정희, 강석경 이런 작가들의 소설이었고, 저희가 대학원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열심히 봤던 이론들이 소위 포스트주의들이었는데,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를 접하면서, 페미니즘도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자연스럽게 지적인 자양분으로 받아들였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움이 하나 있다면 또 다른 한 측면은 제가 한동안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프롤레타리아 문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 내부에 있었던 욕망 중에 하나가 ‘한정된 시간 문학연구를 하는데 기왕이면 당대 최고의 작가를 한번 만나고 싶다. 식민지 시기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아닌가?’ 그러면서 해본 건데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여성작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조서연입니다. 사실 라운드테이블에 불러주셨을 때 약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문학 전공 안에서는 조금 드문, 희곡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등을 다루는 드라마 전공자라서, ‘신진비평가/연구자’로 호출될 때 흔히 기대할 만한 것과는 약간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2000년대 중반에 학부에 들어갔고요,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 세대의 끝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면 바로 반성폭력 내규 이런 거부터 배우고, 또 여성주의 연극 동아리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런데 대학원 들어갈 때쯤부터는 사회적으로 백래시가 몰아닥쳤고, 과정을 다니면서는 페미니즘으로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면 여학생들이 어려운 거 하기 싫어서 쉽게 선택하는 주제라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어야 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문학을)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석사논문 주제를 전후 희곡으로 잡았는데 그때 마침 한국여성문학학회 선생님들의 『여원』 연구라든가 여러 연구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결국은 원래 맛봤던 페미니즘과 젠더 연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할 만한 또래 연구자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다 있었는데, 그때는 안 모이던 때였던 것 같아요. 수료하고 나서 여성문학학회에서 신진연구자 세미나를 한다고 하고, 그때 우연히 합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아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아 이제 그냥 계속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웃음)

김양선 선생님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꺾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페미니즘을 자유롭게 향유했거나 실천했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억눌렸던 세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페미니즘 리부

트' 시대이고 여성문학 하겠다는 연구자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현상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국문학계에 도발적 문제를 제기했던, 남성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을 하는 비평이 시작되었는데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2000년대 전을 초기 여성문학 연구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여성작가 작품을 발굴하거나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나혜석을 발굴하고, 신여성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상경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작업처럼 남성작가의 반여성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 근대문학장, 제도, 문화 연구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수행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다시 문학, 텍스트로 회귀해야 된다는 식의 자성이나 비판도 있는 게 지금의 어떤 복잡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패널들 중에 먼저 여성문학연구를 시작하신 이상경 선생님께 너무 거창한 질문이지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놓친 지점들이랄지 한계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경 제가 이 질문을 받아놓고 이 거창한 걸 나더러 답하란 말이야? 걱정했는데 오늘 와서 오자은 선생님이나 김은하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니 두 분께서 이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셔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했던 작업인 「여성의 눈으로 보는 한국문학의 현실」은 남성 작가의 반여성적인 시각을 문제 삼는 것이었는데 이런 작업을 잠깐 한 뒤, 여성 작가와 여성문학을 살펴보려고 하니 정말 참고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작가들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하는 문학사적 자리매김 같은 그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여성 작가의 작품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작업이지요.

여성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노력은 많은 연구자의 노력으로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 여성 작가를 두고 꼽아보면 강경애, 나혜석을 필두로 해서 박화성, 김말봉, 백신애, 김명순, 지하련, 송계월, 노천명, 모운숙 등등의 전집과 김일엽, 이선희, 최정희, 임순득 등등의 선집이 출간되어

연구자나 독자가 여성 작가의 작품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은 계속 되어야겠지요.

여성작가와 작품을 평가하는 작업은 여러 방향일 텐데 우선 제가 1993년에 출간한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 다른 남자 세 명하고 저하고 네 명이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장르를 나누어 맡아서 쓴 공저 형식입니다. 그중에 제가 소설 파트를 맡아서 썼습니다. 문학사를 공부하면서 해방 전까지 문학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 문학사를 쓸 때도 모두들 같이 ‘분노’로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78학번이니까 80년대를 건너온 세대여서, 그 세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느꼈던 게,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읽었던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하는 깨달음과 그런 것만 가르친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한 경이, 전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쪽의 문학사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다 겹쳐 있었어요. 그걸 깨뜨리고, 나아가 우리 세대의 눈으로 기존의 문학을 새로 읽어야 한다는 각오로 ‘감히’ 문학사라는 걸 썼습니다. 기존의 반쪽 문학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카프족 작가와 작품을 복원하고 복권하는 작업이 국문과에서 한창 진행되었기에 그 성과를 종합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공부해서 메워 가야말로 새로운 ‘근대’ ‘민족’ 문학사를 세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젊어서, 또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용감했었겠지요. 그때 문학사를 쓰면서 여성문학연구자로서 제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이 여성작가를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풍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연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연구도 그렇고, 아직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나해석하고 강경애 정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너무’ 반여성적이라고 그때도 생각하고 지금도 확신하는 김동인 같은 작가를 나는, 내가 쓰는 문학사에 넣지 않겠다고 빼버린 것.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웃음)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해석을 만나면서 좀 더 여성문학쪽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다른 패널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겪으시는, 여자니까 쉽게 여자 작가와 작품을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을 대놓고 듣기도 하고 스스로 검열하기도 하는 과정이 당연히 저한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석사 논문을 강경애로 쓰면서도 끝없이 ‘나

는 내가 여자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작가여서 쓰는 것이 다'라고 하면서 논문 구절구절에도 그런 여성주의적인 시각은 거의 드러내지 않으려고 제 판에는 몸부림을 쳤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사실은 박사 논문은 카프 작가 이기영으로 쓰는 쪽으로 갔다가 (웃음) 그걸 끝내고 나서 야 나혜석이나 강경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텍스트 정리 작업과 문학사적 자리매김 같은 것을 주로 했지요.

아까 발표에서 고전문학 정리하신 분이 고전여성문학연구는 안 그런데 우리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근대여성문학연구는 굉장히 실증지향적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² 저뿐만 아니라 먼저 시작했던 서정자 선생님이라든지 같이 시작했던 이덕화 선생님 등 한국여성문학학회 초기 멤버들은 다 비슷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실증지향성 같은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가 쌓이면서 그 이후 후배 세대(?)들은 여성문학 연구에서 젠더 연구로 넘어가고 또 젠더에 관련된 서구의 첨단 이론을 참고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매체나 개념, 문학 제도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연구는 사실 저한테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고 크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야를 열어주는 하지만 개별 작가나 작품이 사라진(?) 연구는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좀 희미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분노와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선택하고, 어떤 주제를 붙잡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 이론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때는 분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의식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가졌던 분노, 문제의식의 바탕에서 계속 여성문학 연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성연구자로서 처음 분노를 자각한 때로부터 무려 40년이 지난 세상이니 연구도 쌓이고 상황도 달라져서 그런 분노를 느낄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성문학연구의 출발점이나 지향점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2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호에 실린 홍나래, 「한국여성문학학회에서 고전문학 연구의 위상과 과제에 대하여」 참조.

그런데 문득, 세상에, 『82년생 김지영』이 독자 대중에게 큰 공명을 얻고 있는 현상을 접하면서 어떤 종류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독자 대중 개인 개인의 상황과 감정—억울함, 분노, 슬픔—을 연구자들이 그동안 좀 너무 소홀하게 지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자은 선생님께서 그 힘든 수작업을 통해 2015년 이후부터 학회지가, 학회지 특집의 지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 바뀌었다는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애초에 출발했던 여성문학연구의 목적의식—목적의식이라고 하면 후배 연구자들에게는 좀 낯설게 들리겠지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까요? 최근의 연구가 다시 여성의 삶의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로 가고 있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작가만 아니라 여성연구자도 여성연구자로서의 자기서사를 논문으로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여성문학연구가 ‘정전’이나 ‘문학사’라는 것이 가지는 억압이나 폭력 등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기존의 ‘정전’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제는 다시 어떤 종류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가, 기준을 세우는 노력을 연구자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삶의 경험, 도달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전의 구축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이런 상황, 즉 그 이전 여성문학의 성과들은 잊힌 채 새삼스럽게 『82년생 김지영』이 마치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새로 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에 일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교육의 장에서는 여전히 정전 비슷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령 ‘젠더로 읽는 문학사’ 같은 것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김양선 선생님께서 반쪽문학사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지금까지의 문학사를 비판하고 여성문학사나 여성문학 앤솔로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반쪽문학사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한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걸 보니까 강경애는 넣고 김동인은 빼고, 그 다음에 석사논문은 강경애를 썼는데 박사논문은 또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기영을 썼다가 다시 나혜석으로 오고. (웃음) 정말 저희가 대학원이라는 제도 안에서 겪었던 경험이어

서 공감에 갑니다. 젠더에 한정된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부족한 게 아닌가, 반쪽의 문학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기검열을 끊임없이 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손유경 선생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포스트주의와 페미니즘이 호환이 되는 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던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상경 선생님이나 제 세대 같은 경우는 91년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목격하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온갖 포스트주의를 따라잡기 바빴다면, 손유경 선생님 세대는 포스트 구조주의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페미니즘같은 이론을 거부감 없이(?) 수용했던 세대였죠. 또 선생님은 페미니즘 문학에 입문한 신진 연구자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성문학 강좌, 대학원이나 학부 과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성문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덧붙여서 여성문학 연구자들이나 후학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나 주제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경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 대학원생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사실은 저보다 앞선 여성문학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엄혹한 시기에 대학원생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을 자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저는 너무나 운 좋게도 여성문학연구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고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80년대 대학 상황은 계급프리즘으로 시대와 역사를 바라봤고, 2000년대에는 당연히 김미현 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젠더프리즘으로 현실과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론의 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수업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변혁의 시대에 마르크시즘은 모르면 무식하고 창피한 거였는데, 현재 페미니즘은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고 몰라도 간섭을 해도 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론이 이론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것을 넘어서서, 페미니즘을 하나의 이론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정립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자 문제의식입니다. 마치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지식인—전위가 노동자의 자생성/자발성을 털어내 가며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페미니즘 이론 역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확산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많은 이론의 범람이 있다 보니까 20년 정도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한 줄짜리로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된단 말이죠.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없다’ 한 줄로 다 통용되고 데리다는 ‘텍스트 바깥은 없다’ 그거 한 줄, 앤더슨은 ‘민족은 상상된 것이다’ 그거 한 줄. (웃음) 전부 다 한 줄짜리 인용으로 이론을 소화해온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많이 체한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제 한 줄짜리 인용은 그만하고 싶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시기와 작가, 이것은 선생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인데. 정말 뛰어난 여성 작가, 시인들, 또 비평가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는 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으로 잘 영토화되지 않는 것은 심사를 하는 제도권 학자들이 대체로 586 남성 세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너무 시기상조다, 90년대를 보는 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2000년대는 아직 작가들이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시기 구획 자체가 굉장히 젠더화된 관점이라고 보고, 활발히 활동하고 뛰어난 이론가들이 있는 90년대, 2000년대를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자료를 찾고, 발굴한 것이 저희 선배 선생님들께서 해오신 작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행복하게 그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이 시기를 저는 굉장히 용감하게 뚫고 나가는 것이 결국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문학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페미니즘 이론이 그냥 페미니즘 이론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자양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메타적인 고찰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문』(『또 하나의 문화』)에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기반들이라든가 철학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여성주의 이론에 기여해 왔는가 같은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또문 필자들이 비문학 여성학 전공자로 특히 인류학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마르

크스주의를 대신해 등장한 ‘또하나의 사회과학’인 인류학이 페미니즘 이론 형성에 미친 영향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문학 여성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또문’ 그룹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인류학을 이론적 자원으로, 그리고 1980년대의 ‘여성해방문학’을 역사적 자원으로 삼아서 1990년대 본격적인 ‘페미니즘비평’의 시대를 열어젖혔던 거죠. ‘또문’의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이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1991)라는 글을 써서 주류 비평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비판이 문학계 또는 문단 ‘내부’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해 줍니다.

김양선 정말 일목요연하게 연구 시기나 연구 대상은 90년대, 2000년대까지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론이 자양분으로 삼아 왔던 이론들에 대한 메타적 고찰이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심진경 선생님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진경 선생님은 지금도 비평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이어서. 여성문학 비평이 지금까지 왔던 궤적을 짚으면서, 여성문학 비평의 공과나 앞으로 여성문학 비평이 발굴할 아젠다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경 조금 전 손유경 선생님이 1990년대, 2000년대 문학 연구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90년대를 여성문학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로 흔히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90년대가 한국경제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풍성했고, 그 다음에 소비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문학시장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성작가, 여성문학이라는 것이 동원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하면 흔히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과 사회』를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주로 기존의 8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외적인, 공적인, 남성적인 문학, 거대한 남성 문학에 대한 일종의 대항으로서 사적인, 내적인, 미시적인 여성문학 담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성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남성문학에 대한 대항으로 배

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과장되게 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작가의 문학을 대안적인 문학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성 구분 도식, 남성/여성이라고 하는 구분의 도식이 강화된 점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여성을 남성과의 대타적 관계 속에서만 계속해서 사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립쌍으로 남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성별 이분법의 도식성 안에서 사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문학은 이러한 성별 대립의 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성문학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에 관한 문학이 아니라, 기존의 단단한 문학장이 고수해 온 문학성의 한계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불완전한 문학을 문학의 원래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확장하고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문학을 기존 문학과 여러 관계 속에서 사유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남성이라고 하는 성차의 또 다른 항목 속에서만 생각했다는 것, 그런 점이 제가 봤을 때 90년대 문학이 가진 한계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2000년대는 앞서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여성문학이 퇴화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대 여성문학과 여성성의 미학」에서도 썼지만 은희경씨가 대산문화재단에서 주최한 키퍼런스에서 ‘나는 여성작가가 아닌데 자꾸만 여성작가로 범주화해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다, 나는 인간에 대한 문학을 했다’, 그런 식으로 여성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신호탄인 것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여성문학이라는 것이 90년대처럼,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천운영이라든지, 강영숙이라든지, 배수아라든지, 이런 식의 기존의 남성/여성이라고 하는 대립적 관계 속에서 어떤 구성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수적 젠더들, 동성애라든가 다른 성소수자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는 사실 그것이 트렌디한 경향성으로 묶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산발적, 징후적으로만 드러났던 거고. 잘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여성문학을 한다는 것이 조금 촌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문학을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

실 90년대 문학이 일종의 여성해방문학인데 여성의 무엇을 해방했다면 여성의 성을 해방하는 문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섹슈얼리티의 해방으로 말이 얘기가 되었다는 거죠. 은희경이나 전경린의 소설들, 그 당시 불륜문학으로 분류됐던 서하진, 차현숙의 소설들이 그런데요. 프리섹스라든가 성적 일탈, 불륜 같은 것들이 여성작가들의 소설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반면 지금 여성작가들의 작품에는 섹스 장면이 거의 없어요. 포옹 장면도 잘 없는데, 그때 당시의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책만 펼치면 대충 섹스 장면이 나와요. (웃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성의 해방이라든가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여성의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성적 일탈을 통해서 해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 보면, 성적 욕망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내밀한 세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력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욕망과 폭력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0년대 여성작가들의 소설을 보면 성폭력과 사랑, 뭐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면 김형경의 『세월』에서 남자 선배가 자기를 강제로 성폭력을 했는데도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 남성과 동거를 하죠. 나중에 소설가로 데뷔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절을 회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잘 쓰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시절의 여성문학과 지금의 여성문학은 너무 다른 듯합니다. 어찌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90년대 여성문학이란 것이 반여성주의적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당시 여성문학이 가진 역동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문학의 미학적, 실천적 차원들을 재검토해 보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김양선 손유경 선생님이 아까 90년대 2000년대 여성문학을 이제 학적 연구의 장이나 비평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또 심진경 선생님이 90년대 문학과 2000년대 여성문학을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섹슈얼리티

의 혁명, 불륜, 욕망, 이런 게 90년대 여성문학을 말하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전복적 상상력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했던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90년대 여성문학을 평가한다면 과연 그런 평가가 유효할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어떻게 다시 사유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여성문학에 여성문학으로서의 특징이 없다는 진단도 내리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서연 선생님이 제일 신진 세대예요. 신진 여성 연구자이면서 비평도 하고 계시니 실천적인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학원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신진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연구 및 비평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선생님의 고민이나 신진 연구자들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일종의 아젠다가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연 사실 미리 질문지를 주셨던 것들이라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받았던 것은 앞으로 발굴해야 할 아젠다와 신진 여성문학 연구자 비평가로서 뭐가 어렵냐,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세 가지를 생각해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생각해왔던 것 중에 첫 번째는 트랜스내셔널, 혹은 아시아라는 공간의 문제였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여성문학 연구에서 이미 해 왔던 것들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양상의 젠더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 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 당장 떠올린 사례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K-엔터테인먼트 관련 논의라든가, ‘위안부’ 관련 논의 등인데요, 여성 재현과 관련하여 자국 내, 혹은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 동아시아적인 연대와 실천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재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자은 선생님³과 신지영 선생님⁴의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고

3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호에 실린 오자은,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참조.

4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호에 실린 신지영, 「트랜스내셔널 여성문학의 공백—‘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로서의 재일조선인 여성문학」 참조.

생각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퀴어비평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성문학 비평에 대한 요구가 꼭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상당히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들끓고, 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술계, 문단 내 성폭력 폭로 운동이라든가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문학과 어떻게 공명했는가 하면 사실은 그 직전에 표절사태가 함께 있었고, 이 부분은 이미 최근에 여러 평론가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바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러한 시기들에 요청된 것이 문학이라는 것 자체를 심문에 부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시 캐묻는 기회가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계기 삼아서 온갖 것들이 다시 질문되는 역동적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꼭 이야기되어야 하는 게 퀴어비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성문학 연구를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여성 이미지 비평이라든가 혹은 정말 여성 작가가 생산한 것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제대로 불린 적이 없는 여성의 이야기를 여전히 불러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 둘을 양분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재적인 측면에서 퀴어문학을 발견하고 기존의 문학으로 포섭하거나 편입시키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문학적 세계의 구성과 해석에 있어서 암묵적인 바탕을 이루어왔던 이성애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방법론을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상 퀴어문학의 계토화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특히 여성문학이라는 것이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문학사 및 문학적인 활동에 덧붙는, 어떤 부가적인 하위 카테고리처럼 취급되어 왔던 상황과도 닮은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라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범주로서의 젠더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또한 ‘퀴어문학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나타나면 비평이나 연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퀴어 리터러시가 근본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몇 유의미한 작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관성이 큰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구체

적으로 안을 내보라고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말을 당장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쿼어문학 연구가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임을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사실 여성문학 연구는 이제 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을 넘어서서 장르 간의 교섭 같은 것들에 특히 열려 있던 장인데, 이제는 문단 문학이나 장르 문학 간의 경계라든가 혹은 전통적인 의미의 문학과 다른 여러 매체에서의 서사들이라든가 이런 장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생산 및 유통의 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전에는 잡지라든가 여학생의 독서 같은 것들을 여성문학 연구의 역량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듯이, 최근에는 문학제도를 거치지 않은 종류의 출판, 특히 온라인 출판 같은 것들. 가령 최근 47호 『여성문학연구』에도 실렸던 BL에 대한 연구라든가 최근 석사논문으로 나온 ‘오메가버스’ 연구 등 여성들의 비규범적인 독서 및 창작 행위에 대한 연구들이 단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진으로서 뭐가 어렵냐,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먼저 질문지를 주셨는데,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웃음) 사실 제일 시급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자기만의 방과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너무 대표성을 참칭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또래의 연구자들은 자신이 앞으로 졸업을 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상당히 열게 갖고 있는 편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성차별이라든가 혹은 문이 닫히는 문제들이라든가 비정규직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데, 저는 정규직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교원 노조라든가 밖에 와계시는 대학원생노조 등은 정규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나 강사로서 노동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사논문 작성 중이라 하는 말은 아니고요. (웃음) 제가 통계를 보고 온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박사 수료에서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기도 한데, 당사자들한테 이 기간은 학위취득 이전에 학위취득을 향해 달려가는 유예의 기

간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육과 연구와 혹은 연구자로서 훈련 받아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학이나 연구재단의 지원이라든가 제도들은 이 시기에 놓인 연구자들을 연구 주체로 충분히 여기고 있지 않고, 미성숙한 예비의 상태로만 보는 것 같아요. ‘신진’의 역량이 발휘되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선 선배 연구자들로서 귀 기울여야 할 후배 연구자의 진중한 고민들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경청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준비하는 데 압박감을 느끼셨을 텐데 패널 선생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